

정부, 닭고기 수출지원 검토

- 수당 5백원씩 총 60만수분에 대해 지원방안 모색 -

정부가 닭고기 수출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대일수출을 적극 추진해온 국내 육계 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농림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닭고기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연리 3%의 낮은 이자에 1년 상환을 조건으로 닭고기 수출시 수당 5백원씩 총 60만수분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제역 발생으로 그동안 수출효자품목으로 지목돼 왔던 돼지고기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반면 닭고기의 경우 국내 육계업계가 수출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닭고기 수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삼계탕 가공품 외에 신선육 수출까지 사실상 성사단계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본격적인 닭고기 수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출초창기에 따른 위험요

소와 함께 현지에서의 과다한 유통비 및 홍보비 부담을 안고 있는 국내 수출업체에 실적에 따른 자금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의 대일 닭고기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지원규모를 떠나 정부가 닭고기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의 사례를 감안할 때 내년도에 수출실적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차년도에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D,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지원등 내년도 양계방역예산 크게 확대

양계부문에 대한 내년도 가축방역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농림부 2001년도 가축방역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가축방역비는 총 232억2천900만원으로 올해 171억6천800만원보다 3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계부문에 대해서는 닭뉴캐슬병 예방약과 종계장의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을 신규로 지원하며 가축위생시

험소 방제차량, 방역차량, 소독장비 지원등이 추진된다.

뉴캐슬병 예방약의 경우 부화장은 국비 100%로 1수당 5원씩 4억수 분량을 지원하고 농가에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비율로 4억수 분량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도 총 500만수 분량에 대해 수당 110원씩을 국비로 신규 지원한다.

한국가금학회 추계산학협동 심포지움 개최

2000년 한국가금학회 추계산학 협동 심포지움이 10월 13일 농협중앙회 계육가공분사(충북음성)에서 개최됐다.

「계육의 해외 수출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추계 산학협동 심포지움에서는 △닭고기 수출 정책방향(정동홍, 농림부) △닭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 전략, 홍보대책 및 제도 개선 방향(정진성 한국계육협회) △수출용 닭고기 부분육 생산을 위한 사육기술(강보석 축산기술연구소) △닭고기 저장성 증진 기술(이성기 강원대) △육계 질병관리 기술(송창선 수의과학검역원)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대형육계사육(최길영 영남농장) △도계 HACCP(박영

호 목우촌)에 대한 사례발표도 가졌다.

농업기자기 부가세 영세율 적용 3년 연장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기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오는 2003년 말까지 3년 간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축산업 소득공제 및 10년이상 경영농장 이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0% 감면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138종의 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03년까지 연장하는 세계개편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올해 닭고기 수요 1백74만7천톤으로 전망

- 전년비 1.2% 감소전망, 국산 전년 밀돌아 -

일본 농수성이 발표한 올해 닭고기 수급전망치에 따르면, 수요량은 1백74만7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요량은 가계소비량 52만4천톤에 가공업무용 1백22만3천톤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전년도 실적을 밀돈 것이다. 한편, 공급량은 1백77만톤으로 전년대비 0.4%감소로, 이 중 국내생산량이 1백19만9천톤으로 전년실적을 밀돌고 수입량은 57만1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별로는 중국이 가뭄으로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원료

공급에 차질이 있고 대일수출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판매는 순조로운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냉장육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태국은 가공품 수출이 두 자리수 증가로 늘고 있는데 일본시장의 숯불구이 시장은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브라질은 옥수수 생산이 세계시장에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축산생산이 늘고 있고 사료용 원료를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자가격이 높아 수출가격 역시 높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경기 호황으로 국내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가공품 수출은 늘고 있으나 생육수출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엠브렉스, 종란 백신접종기 확대 운용계획 밝혀

생독백신의 종란접종을 통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 질병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종란백신 접종기 Inovoject 공급사인 (주)엠브렉스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소재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엠브렉스는 미 알카소 주립대학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 바이러스 중화인자(VNF)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며 VNF는 생독백신을 종란에 사용시 안전성과 효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백신개발에 특이항체를 이용하였으며 특이항체를 생 바이러스와 적절한 비율로 섞어 바이러스와 항체가 복합된 백신을 만들어 계태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체와 바이러스가 적절한 비율로 복합된 백신은 체내에 주입시 바이러스가 유리되는 것을 지연시키는데 계태아는 이미 체내에 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체이항 항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지연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닭들이 성장함에 따라 모체이항 항체는 사라지고 백신이 접종되지 않는 닭들은 감염에 노출되게 된다. 모체이항 항체가 감소함에 따라 VNF의 지연방출작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기에 바이러스가 계태아에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현재 VNF는 마력백신과 감보로 백신접종에 이용되고 있으며 ND백신과 IB백신이 야외시험중에 있다고 엠브렉스측은 밝히고 있어 그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종란백신 접종기 Inovoject는 한국에 4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3대는 육계 및 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대는 산란계에 사용되고 있다.

브라질, 올해 상반기 닭고기 수출량 증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자협회(ABEF)가 공표한 2000년 상반기(1~6월) 닭고기 수출량(뼈 포함)은 41만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전체(몸통)는 20만7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데 반해 부분은 28.8% 증가한 20만3천톤으로 큰폭의 증가를 보였다.

부분육의 시장점유율은 4.5포인트 상승한 49.5%로 몸통의 시장 점유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몸통의 주요 시장인 중동지역이 1.2% 감소한 15만8천톤으로 수출시장 점유율은 38.5%로 40%대를 밀돌아 전년동기와 비교해 7.2포인트 하락했다. ABEF는 이 요인으로 닭고기 업계가 가격저하가 두드러진 중동지역에 대한 닭고기 수출을 보류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부분육의 주요시장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32.2% 증가한 14만톤, EU지역은 39.3% 증가한 5만6천톤으로 집계됐으며 수출량 점유율은 아시아가 3.9포인트 상승한 34.1%, EU수출용이 2.2포인트 상승한 13.8%로 집계됐다. 한편, 남미남부공동시장용은 17.3% 증가한 2만6천톤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브라질 닭고기수출량은 대폭으로 증가한 한편, 수출액(FOB)은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 3억7천2백만달러(1달러=약 1090원), 1톤당 평균수출가격은 907달러로 전년동기를 24.6% 하회했다.

북한에서 가축과 사료원료의 현황

신 동 원 박사 / 북한농업 연구소, 농촌사회발전 연구소
이 근 상 박사 / 북한농업 연구소, 농촌사회발전 연구소

본 연구는 북한의 미래에 가능한 곡류사료 수급에 대한 조명을 하여 미국의 곡류사료분야에서 추구하는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북한의 축산과 사료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하였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서 가축과 사료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부분 남한 당국과 북한을 방문했던 다국적 단체들 그리고 농업관련 국제적인 기구들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시행하였다.

북한은 1945년 한반도가 두 개의 한국으로 분리된 이후 1948년 공산주의로 출발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하며 미시시피주와 비슷한 영토로서 약 2200만의 인구가 존재하며 사회노동당의 1인 독재체제의 군주국가형태를 가진 국가이다. 스탈린의 은둔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사라진 오늘날에조차 북한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1인 정치체제와 경제적인 구조를 갖는 유일한 국가로서 농업생산체제도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최근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토지개혁, 집단협동농장 농업체제로 변화시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극심한 식량, 에너지, 외화부족으로 시달려 왔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곡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할 지라도 여러경로를 통하여 보면 북한은 주로 쌀과 옥수수를 연간 약 600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400만톤을 생산하므로 200만톤이 부족한 상태이다. 북한은 1995-1999년에 약 500만톤의 곡류를 미국, 중국, 남한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식량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남한으로부터 매년 약 1백만톤씩 공급받는 북한은 옥수수 와 쌀 생산의 비율이 6:4로 식량자원에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축사료로 공급한다.

북한의 농업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중앙, 지방, 부락등 3단계로 구성되는 농업생산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부락단위의 리-동 협동농장체제는 농부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농업의 기본 단위로서 운영되는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락단위의 농업은 580농가와 600ha농지로 구성되며, 각각의 농장은 작물, 축산등을 위하여 일하는 약 50-100명으로 이루어진 5에서 10개의 군으로 구성되며 그 아래 단계

에서는 15-20명의 농부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농장 조직은 개인에게 아주 적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생산성과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북한에는 19개의 대학 및 단과대학이 있으며, 61개의 연구소와 약 5000명의 연구원 및 관련종사자가 있다. 농부의 생활은 정부의 통제아래 의, 식, 주, 직업, 이익배당이 이루어진다.

가축의 사육은 1970년대에 사육기술의 발달과 경영체계의 향상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대규모농장체제로 출발하였다. 주요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으로서 정부주도하에 넓은면적의 협동농장이나, 지방에서 사육되었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두수는 1990년대에 배합사료의 부족으로 감소되었으나, 염소와 토끼의 수는 증가하였다. 주요 가축의 품종은 한우, 홀스테인, 교잡돼지, 레그혼과 플리머드록이며, 사육기술과 설비는 1970년대에 주로 동유럽에서 수입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향상되지 않았다. 국내 생산량은 거의 전량 내부에서 소비되며 극히 일부의 수출과 수출이 있을 뿐이다. 1인당 소비량은 1991년에 15.6kg의 고기와 4.3kg의 우유, 7.3kg의 계란을 소비하였으나, 1997년에는 5.2kg의 고기와 3.3kg의 우유, 3.1kg의 계란섭취로 소비량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사료분야는 지난 10년간에 극히 어려웠으며, 곡류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는 특히 어려웠다. 식량이 부족하므로 가축용 사료로 이용 가능한 곡류는 한정되었다. 정부는 사료배합을 고류 60%, 유박류 25%, 강피류 10%와 그 외에 5%를 배합사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사료공장에서 일년에 100만톤의 사료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공장은 사료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그 대신 조그마한 규모의 농장에서 조사료, 볏짚, 산야초와 같은 수많은 조사료와 식품가공부산물들이 사료원료로서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정부산하의 노동자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염소나, 토끼와 같은 가축에게 이와 같이 거친 조사료로 사육하도록 권장하였다.

북한에서 미래의 가축과 사료산업에 대한 예측은 곤란할 지라도 대체적으로 현재에 처한 식량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극복된다면 잠재력은 대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30년 동안에 남한에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였으므로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농업, 가축, 사료분야

가 전세계적인 추이에 병행하여 발전할 것으로 가정하고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류사료를 추산하였다. 남한과 북한에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두가지 모델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증할 순 없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사료용 곡류를 다량 섭취할 것이며 5년 이내로 200-300만톤이 그리고 10년 이내로 5백만톤의 곡류를 사료용으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식량자원을 국내에서 생산으로 그리고 수입으로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곡류사료의 경우 북한에서는 식량과 사료용으로 내부생산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부족한 양을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곡류 수출국가들은 산후 혹은 사전에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북한시장의 발전

을 촉진하려면 사료곡류 재배에 대한 발전된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미국의 곡류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으로는 두 단계 즉 초기와 전체로 분리한 단계가 있다. 초기단계에서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시장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PL480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국제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곡류를 기부하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 판매계획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두 나라간에 개인적인 교역, 교역하부구조의 발전 교육과 공표, 인접한 국가의 협력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미국곡류시장 발전은 남한, 일본, 대만, 중국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시작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0우리 축산물 브랜드 전 성료

지난 9월21~24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개최됐던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국내 처음으로 우리 축산물 브랜드를 한데 모아 국내산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는

5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 계육업계에서도 본회를 비롯,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식품, 화인코리아, 해표푸드서비스 등이 이번 브랜드전에 참가, 브랜드 닭고기의 우수성과 함께 자사제품의 홍보에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본회는 축산업관련 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참가, 협회 및 회원사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액 연간 6백40억원

지난해 닭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가 총 6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주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양계협회의 용역의뢰에 따른 '중계생산성 향상 방안모색을 위한 닭고기 수급 및 유통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수입자유화 이전인 지난 1996년도와 1999년도(1997년은 수입원년, 1998년은 IMF 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비

교대상에서 제외)를 비교했을 때 연간 생산자 손실이 6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닭고기 수입은 지난 8월 현재 60여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10여개 업체가 전체 수입량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육계업체의 직수입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5%에 불과하며 수입내용도 단가가 높은 날개육이나 가슴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 닭다리인 수입닭고기

는 통관된 후 전국의 1천여개나 되는 발골장에서 작업을 거친 후 약 70%가 빼어난 닭갈비용으로 소비되는데 이들 발골장들 대부분이 미허가 업체로 해동방법을 상온에 방치하거나 물에 담궈 해동, 닭고기의 질적 변화는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중국산 닭고기 수입 계속 늘어

지난 5월부터 재개된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4백13톤이 수입되어 8월의 1백19톤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으며, kg당 가격은 9월에 1.6불로 8월의 1.7불에 비해 낮아졌다. 이 가격은 태국산의 가격대와 같은 수준이다.

당초 본회에서 중국의 수출도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품질과 가격 수준이라도 충분히 맞추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 재개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

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정밀검역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국내 여건이 좋지 않아 공식적인 수입은 6월의 샘플 93kg 이후 8월부터 시작됐다. 가격 또한 중국 현지 조사시 1불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태국산의 가격대에 맞춰졌으며 미국산의 80센트에 비해 2배의 수준이다. 물론 미국산은 다리 부위가 주이며 태국산과 중국산은 대부분 가슴살로 부위가 다르다. 또한 미국산의 경우 대부분 발골되어 닭갈비나 빼어난 닭고기(살로만치킨, 둘

리치킨 등) 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태국산이나 중국산의 가슴살은 대부분 가공품(너겟, 패티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9월부터는 정밀검역이 끝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산의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인 사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김선오 (10월 7일자)



닭고기의 대명사
마니켓

닭고기는 마니켓-

닭고기는 마니켓-
주식회사 마니켓

TEL:031-336-0123
FAX:031-336-0120

상선이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TEL : 02-424-8211 FAX : 02-3431-9180

ISO9001인증업체
KS표시품 생산업체

(주) 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하림,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인증

(주)하림(대표 김홍국)이 지난 9. 14일부로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17일 실시된 HACCP 인증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이었던 생계 검사대 설치 및 육계 작업장 구획 등을 완료함에 따라 하림은 국내 도계 업계 최초의 HACCP 적용 업체로 인증됐다.

이에따라 하림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품질제고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림에 따르면 이번 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을 위해 총 20억원의 자금을 투입, HACCP 시행에 필수적인 공조시스템 설치는 물론 작업장벽이나 천정을 신소재인 특수항균기능성 페인트로 처리하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시설을 전면 개보수 했다고 밝혔다.

또한 HACCP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기존의 KS 및 ISO 기준과 통합된 품질규정을 마련, 현장에서 적용해온 것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의식을 대폭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2만수에 1수씩 병원성 미생

물 검사를 통한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 3시간에 한번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림의 한 관계자는 『HACCP 인증획득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영자의 의지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됐다』며 『일본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요구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대일 닭고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닭고기 군납, 수의계약에서 탈피 경쟁입찰로 개선돼야

본회는 닭고기 군납과 관련, 현행 수의 계약에서 탈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HACCP 시행농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납품체도로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방부」에 건의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이번 건의에서 본회는 과거(10년전)

에는 닭고기 생산여건(생산구조, 처리, 유통)이 낙후돼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육계계열화 생산체제의 확립으로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이제는 군납제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납과정에서 일부 유통업자들의 편법개입으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달 요리카드

닭날개탕수조림



품질 및 시설을 자랑하는 동우 닭고기

황금삼계 한마리가 보약(補藥) 한 첩

황금닭이란?

국내산 닭고기로서 한방약재(漢方藥材)인 황금(黃耆)·석창포(石菖蒲)·의이인(薏苡仁)·참출(蔞朮)·방기(防己)·삼칠근(三七根) 그 외 4종의 약재가 첨가된 황금탕(GOLDTON)을 먹고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닭을 황금닭이라 합니다.



Tel:(063)450-2000~4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CO..LTD.